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입영지원금 10~20만원으로 인상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입영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 중 입영일 기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입영통지서와 신분증,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충전해 지급하므로 신청 전 입영 예정자 본인이 지역상품권 앱(App)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특별 이벤트 진행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기부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 외의 지역인 사람이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까지는 44% △2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증정 예정이다.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본격 조성

고창군, 토지문제 원만히 해결...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

고창군이 산림휴양·레포츠·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을 본격화하며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에 속도를 낸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산림휴양테마파크 토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서 아산면 용계리 일원 56ha 부지에 구름골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 시설이 올해말까지 건립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된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 숲속야영장, 산책로 등 자연친화형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가족 단위 방문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사계절 힐링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로프·네트·레일을 활용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도입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목공 체험과 전시 기능을 갖춘 목재문화체험장을 구축해 복합 산림문화공간으로 확장해 나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



고창군이 산림휴양·레포츠·체험콘텐츠를 결합한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을 본격화하며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에 속도를 낸다.

로그그램을 운영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운곡탐사트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등 인근 자원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벨트가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고품격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고창을 대표하는 산림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블로그기자단 발대식·활동 돌입

총 21명 선정... 블로그 글·영상 콘텐츠 통해 고창의 매력 홍보

고창군이 29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고창군 블로그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블로그기자단 모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심이 이어졌으며, 심사를 거쳐 글·사진과 영상 기자로 구성된 총 21명이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기자증 수여와 함께 기자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기자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각오와 포부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자단은 오는 연말까지 군정 소식과 문화·관광 행사, 일상 속 고창 이야기를 블로그 글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전달하며, 고창군의 다양한 매력

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도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영상기자단 6명을 선발하여,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군수는 "블로그기자단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고창을 알리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홍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작년 주요 관광지점에 196만명 방문

전년 대비 32만명 증가... 내장산국립공원·구절초지방정원 등이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

정읍시 2025년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수가 2024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며 지역 관광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요 관광지점 20개소의 총 방문객 수는 약 19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64만여 명 대비 32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관광객 증가를 견인한 핵심 지점은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지방정원이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년 대비 약 15만 명 이상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구절초지방정원 역시 전년 대비 13만 명 이상 늘어난 46만 1948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정읍을 대표하는 계절형·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요 관광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절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문객 관리 체계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지점에서 한때 제외됐던 구절초 지방정원이 재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로부터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7월 무인 계측기를 사용하는 야외 관광지 점들에 대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읍에서는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지방정원의 지정 승인이 취소됐다.

이에 시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며 구절초지방정원이 사전예약제와 전산 시스템을 결합한 과학적인 방문객 집계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재등록에 성공했다.

이번 조치로 관광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장산국립공원에 대해서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립공원공단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부터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자체적인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주관 지점과 시가 자체 발굴한 지점을 포함한 총 28개소의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방문객 증가는 정읍 관광자원의 매력과 함께 통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행정적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팀의 이동통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정읍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53만 3622명 증가한 1177만 3070명을 기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면, 결실창래 군민과 소통의 장

권익현 군수, 군정 비전 공유·계획 마련 의견 청취 등

부안 계화면, 부안군 계화면(면장 김희순)은 29일 계화종합복지센터에서 2026년 결실창래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부안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화 포순이머니회(회장 최영순) 및 두일전기(대표 이원춘)의 부안군 근공민재육성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며, 임오섭 돈지마을 이장 및 김익곤 창북마을 이장, 계화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전용호)의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을 전달했다.

희망소통대회 순으로 면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군정 비전 공유,

군민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권익현 군수는 2026년 군정 비전 및 운영 방향이 담긴 PT를 하고 군정에 대한 계화면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후 창남경로당, 창북4경로당, 돈지경로당 등 계화면 관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애로사항을 청취로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변산면,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개최

부안군 변산면(면장 양정우)은 29일 NH농협생명연수원 새만금홀에서 2026년 변산면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위해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변산면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 대표가 각각 100만원의 부안군 근공민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하며, 변산면 새마을부녀회 200만원, 수락마을 정광에 부녀회장 200만원, 변산면 직원 일동이 100만원 등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변산면 이장협의회, 죽막마을 정삼열 이장, 송포마을 조동선씨, 민복건설 김

양정우 변산면장의 면정업무보고 시작으로 2025년 주요성과와 더불어 변산면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